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3년 1월 6일(금) 총 3매	
담당부서 건축과	담 당 자	• 건축계획팀장 이양호 ☎440-4721 • 담당자 김동찬 ☎440-472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건축자산 멸실 · 훼손 막는다.

-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 착수 … 8월께 마무리 -

- 가와바타 창고 · 이십세기 약방 · 해안성당 교육관 · 미츠코시 백화점 대상 -

인천시가 건축자산의 멸실과 훼손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정체성 보전과 사라지는 건축자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시 내 가치있는 건축자산에 대한 상세조사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세조사 사업은 인천시 내 인천의 건축자산이 밀집(약 52%)돼 있는 중·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가와바타 창고 ▲이십세기 약방 ▲해안성당 교육관 ▲미츠코시 백화점이 대상 건축물로 선정됐다.

건축자산은 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대안 없이 멸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사라지게 되면 그 흔적을 다시 찾기 어렵다.

반면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건

축물을 잘 보전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재창조를 기대 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자산이 되기도 한다.

인천시는 4개소의 건축자산 상세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상세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성과품의 제고를 위해 3D 스캔(scan) 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문화재 실측조사에 준하는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상세조사 용역에는 건축물의 재료, 구조, 설계 등 물리적 측면과 역사적 근거 및 이야기, 유명인물 연계 등 인문적 조사와 도면 작성, 사진 촬영 등 활용전략 및 방안이 포함되며 오는 8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향후 건축자산 상세조사사업은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근현대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인천의 정체성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건축자산 상세조사 선정 건축물

붙임 | **건축자산 상세조사 선정 건축물**

▲가와바타 창고

▲이십세기 약방

▲해안성당 교육관

▲미츠코시 백화점